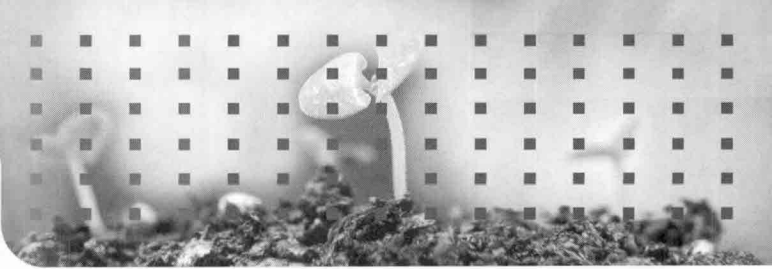


# 지 자 체 소 식



## 경남 남해군,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키로

경남 남해군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은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4월 남해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지난 20일 보고회를 가졌으며, 담당부서와 환경보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이번달 초 최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보전계획에는 지역의 환경여건과 주민 환경의식, 21세기 환경기초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해 자연경관, 토양 및 지하수, 대기·수질환경 등 12개 분야별 환경보전계획과 7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이 포함된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자연환경 분야에 ▲가로경관 확충 및 질적 제고사업 ▲녹색인제 양성 및 녹색협동체제 개발 ▲주요생태계 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 ▲도서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대기분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자동차 정밀검사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내 공기질 및 악취 관리체계 확립 등 10개 사업이, 물 분야에 ▲하천별 물 관리 수질목표 설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하천 쓰레기 차단막 설치 ▲지하수 폐공관리대책 수립 등 13개 사업이다.

폐기물 분야에는 ▲종량제의 완벽한 정착 ▲포장 폐기물의 사용회수 ▲통합재활용시스템 시행 등 8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소음·진동분야 8개 사업, 토양분야 5개 사업, 환경관리기반 8개 사업이 오는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 서울 강남시, 탄소마일리지 제도 운영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에너지관리공단(서울지사)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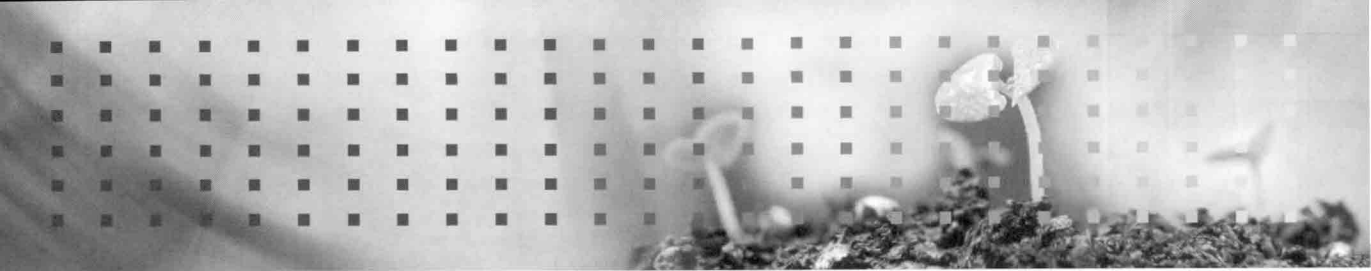
강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양만큼 포인트로 준다. ▲주택은 이산화탄소 10kg 감축할 때마다 1포인트 ▲공공기관과 기업은 100kg 감축시 1포인트 ▲공동주택은 1세대 1포인트 ▲학교는 학생 1인당 3포인트를 받는다.

1포인트당 가액은 500원이다. 포인트는 구청에서 일괄 제작 발행하는 카드에 내장 발급한다. 카드는 2009년초 발행해 대상자에게 일괄 발급할 예정이다.

취득한 포인트는 각종 세제 감면, 복지·문화 및 체육시설, 친환경상품권,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향후 주유권, 교통카드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마일리지는 에너지 사용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e-에너지가계부' 상에 전년도와 금년도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량(학교인 경우 참여 학생수, 공동주택인 경우 참여 주택수)이 계산돼 발급한다. 단, 주택과 공공기관, 기업은 에너지 절약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되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30% 이상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올해 10만 포인트(사용대금 5000만원), 2009년도 20만 포인트(사용대금 1억원), 2010년 30만 포인트(사용대금 1억5천만원)를 발행할



예정이다. 사용대금은 에너지 사용자가 감축한 온실 가스(CO<sub>2</sub>)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들인 금액이다.

강남구는 학교·공동주택·시민단체·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및 각종 보조금, 자금을 탄소마 일리지가 일정한 수준이상 충족한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부산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필요한 2008년도 예산 3억원을 확보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용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3kw)까지 총 150가구를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완료 된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004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부담이 만만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었으나, 이번 부산시의 대폭적인 지방비 확보지원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주택은 일반주택의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 후 태양광발전에 의한 잉여전력이 생길 경우 한전계통 전력선으로 역송되고 역송된 양만큼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 해 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금년도 부산시에서 대폭적인 태양광주택설비 지원으로 전기료 절감 및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효과,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태양광 주택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60~70%의 국비가 지원된다. 20억원 정도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부산시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지방비 지원은 희망가구가 태양광주택 10만호사업 선정 전문기업과 계약 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 완료된 순으로 지급한다. 검토완료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설치확인서 기준)해 최종 설치확인서를 첨부 소정양식에 의거 부산시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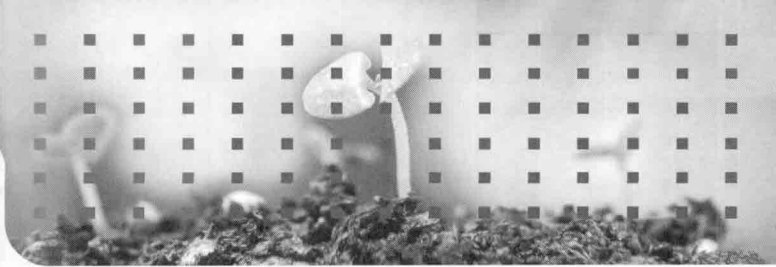
최근 국제유가가 사상 유래 없는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면서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취임 이후 줄곧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절약이고 그 다음은 태양광이나 조력, 축산 분뇨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해온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제철을 비롯한 여수 화학산업단지 등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중공업 단지가 많아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18%인 연4천만여 Toe의 에너지를 사용, 전국 최다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태양광, 축산분뇨, 그리고 조류 등 지역 곳곳에 잠재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 전국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고용 확대도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지 자 체 소 식



실제로 전남에선 지난 2006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22만5천Toe중 28%인 148만811Toe를 생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원유 1천85만배럴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으로 최근 100달러대의 국제유가를 감안하면 연간 11억달러의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경기 75만215Toe, 울산 58만8천964Toe, 강원 58만7천303Toe, 충북 46만2천338Toe 등의 순이다.

##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눈높이 맞춘 체험환경교육 실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환경과학교실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오염물질이 측정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환경보전 습관을 길러주고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단체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에서(☎ 760-1322)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10명이상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 1~2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이론교육, 실험참관, 체험교육, 영상교육,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과 난이도를 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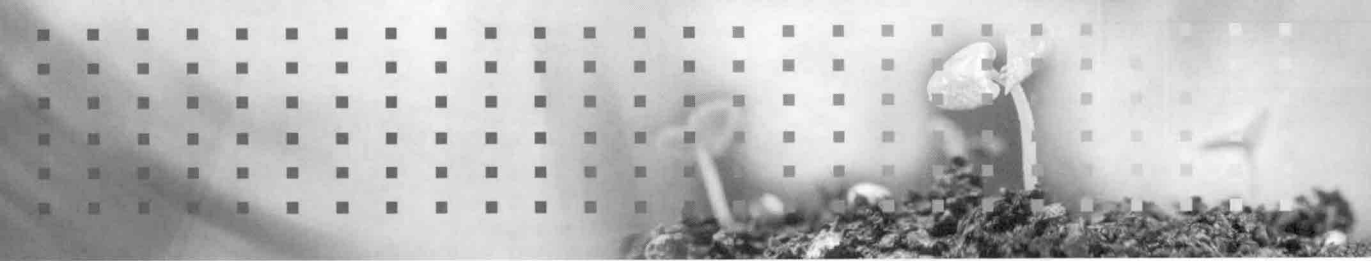
또 이론교육은 소음·진동의 영향과 실생활에서의 수치비교, 오존과 황사가 무엇이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저감방안, 그리고 오존과 황사정보 발령 시 주의사항 등 환경보전에 대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방법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실험참관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지 그 과정을 모형장치를 통해 실험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번 오염된 물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정화가 되는 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체험교육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직접 측정하여 보고, 비눗물과 수돗물의 산성도 실험을 통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영상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실시간 공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하게 된다.

아울러, 실험실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대기 종합정보 상황실 등을 견학하여 실제 환경오염물질이 측정되는 과정을 견학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



기오염도를 알아보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울산시, 태화강 경관 디자인 본격 추진

울산시는 지난 1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태화강 디자인 T/F팀(단장 주봉현 정무부시장) 자문 보고회'를 갖고 태화강 경관 디자인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중구 태화동 일원 태화지구 44만2000㎡에 생태체험·교육, 역사·문화, 생태보전, 문화·예술 등 4개 공간을 내용으로 하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2단계)'이 추진된다.

또한 태화강 남산 하부도로(강변1·2로교 등) 길이 790m 구간에 아치 내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홍수시 통수단면 유지가 가능한 관찰로와 벽면도색, 조명 등의 경관시설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함께 태화강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태화강 연결 도로변 가로수 및 관목 정비, 태화강 호안 콘크리트 법면, 옹벽 등 초화류 및 덩굴류 식재, 태화교 비둘기 공원 주변 둔치정비공사, 태화강 연결 도로변 경관거리 조성(테크보도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태화강 태화교, 번영교, 학성교 양안 둔치 등에 꽃단지 4개소(24만9249㎡), 잔디마당 5개소(13만 8754㎡)가 조성되고 느티나무 등 10종 377본의 수목 식재가 추진된다.

특히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태화강 구영교에서 명촌교까지 24.4km(양안) 구간에 대해 4개 코스로 구분,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고 태화강 교량에 대해 울산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등 태화강 교량 미관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태화강변 가로의 경우 차량 통행에서 보행

자 위주의 개념 도입을 비롯, 전신주, 교통, 배전반의 지중화 우선 고려, 가로 등의 조도를 조절, 밝은 밤거리 조성 등 '태화강 Symbol Road 조성' 방안 등이 추진된다.

### 충남도, 서해안! 해양수산업 본격 착수

충남도는 태안을 비롯한 유류피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방어항건설 및 정비에 130억, 연안정비에 27억 등 총 66개 사업에 73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역특산 수산물을 우량가공제품으로 생산하고,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4개소 ▶수산물 직매장 1개소 ▶수산물 위판장 3개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개소 등 수산물유통 개선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홍성군 남당항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공간이 조성되므로 2010년에는 수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류피해로 침체되어 있는 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수산물 축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및 어촌종합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도서해양 쓰레기 수거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등 10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㉓